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2015. 6. 3.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현황	1
1. 빅데이터 현황	1
2. 빅데이터 현황 진단	2
3. 빅데이터 활성화 필요성	3
4.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	4
II.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5
1.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	5
2.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	6
3. 비식별화 지침 마련	8
III. 기대효과	9
IV. 향후계획	9

I. 추진현황

1 빅데이터 현황

가. 빅데이터 정의

□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기술로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진 데이터를 의미

○ 빅데이터는 3V(Volume, Variety, Velocity)로 정의

- * ① Volume : 전수조사에 근접한 표본
- ② Variety : 구조화 데이터 + SNS, 위치정보 등 비구조화 데이터
- ③ Velocity : 과거 트렌드 분석에서 벗어나 실시간 분석

나. 빅데이터 활용현황

□ 전통적으로 금융부분에서는 상품개발, 마케팅, 부정사용 방지(Fraud Detection System), 신용평가 등에서 빅데이터가 활용

< 국내외 금융관련 빅데이터 활용사례 >

구분		금융회사	주요내용
은행	해외	BOA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유치·수익률 제고
		Cit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 정확도 제고
	국내	IBK기업은행	고객감성분석등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
		SC제일은행	개인 SNS를 이용한 타겟마케팅 활용
보험	해외	Progressive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를 통해 보험 재가입여부 결정
		MetroMile	날씨 데이터에 기반한 농작물 보험 판매
		Travelers	지역·정치 요소들을 분석하여 신규시장 개척
	국내	삼성화재	도덕적해이 사고 및 고위험군 사고 분석 시스템 개발
		교보생명	위험평가모델을 통한 언더라이팅 업무효율 개선
카드	해외	Visa	Real time messaging으로 타겟마케팅 실시
		JCB(일본)	가맹점, 구매패턴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 할인쿠폰 발행
	국내	신한·현대카드	고객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에 활용
		롯데카드	백화점, 마트 등 계열사와 제휴해 마케팅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현황 진단

① (금융권) 외국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

-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
 - * 국내 보험사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마케팅, 보험사기적발 위주인 반면, 외국 보험사는 상품혁신, 기후재난예측 등 다양하게 빅데이터 활용
-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 미국 Progressive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운행기록정보 시스템 도입 이후 수익률은 업계평균의 3배, 자산가치는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
- 외국 금융회사는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영업에 활용하지 못함
 - * 일본 JCB(카드)는 구매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열람율을 46%까지 높여 고객 유치 활용(열람율은 통상 소수점 이하)

② (핀테크 기업) 외국의 경우, 최근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핀테크 기업의 금융 관련 빅데이터 활용사례 >

금융회사	주요내용
Lenddo	SNS를 토대로 SNS 지인 중 연체자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신용평가점수를 개발하여 소액대출업 영위
Kreditech	SNS, e-커머스 거래내역, 자사 가입신청서상 철자법 오류, 문장 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출심사에 활용
Affirm	공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여 차별적인 할부수수료 제시 및 할부구매 지원

①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연결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개인정보처리업, 정보 가공·판매업 등의 연관업종도 함께 발전
- 타업권과 비교해 금융권 빅데이터의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아 산업연관 효과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美 맥킨지('11)는 빅데이터를 통한 생산성 증가 및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분야로 정보통신, 금융을 제시

② 핀테크 기업의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

-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 금융회사들과의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면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
-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기술을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활용할 경우 기술과 금융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③ 금융회사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장개척, 새로운 수익 사업 발굴 등이 가능하여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

- 외국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
- 개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

① (법령상 제약) 신용정보법령상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 활용이 어려움

-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② (인프라 미흡)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확보가 어려움

- 외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정보중개업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중개업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엑시엄(axiom) 등 257개의 중대형 데이터 브로커가 존재

③ (지침 미비) 금융회사가 정보를 비식별화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식별화 정보 활용에 주저

- 개정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강화되어 금융회사의 비식별화 정보활용 노력 저해

< 비식별정보 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 >

☐ (외국) 영미법계, 대륙법계 국가 모두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가능

☐ (한국)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빅데이터 활용)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있으나

-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 예외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정보를 동의 목적 외로 활용 가능한지 불명확

-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라도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

Ⅱ.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핀테크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 분야에 많이 진출·협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1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

가.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 ① (현황·문제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 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 식별정보(다른 정보와 결합),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 비식별 신용정보(식별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도 개인신용정보로 규정
 - 비식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용이 어려움
- ② (해외) 외국은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으며,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음
- ③ (개선방안)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시행령 초안 : 식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개별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9.12일 시행예정)

나.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 ① (현황·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가능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는 동의 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
- ② (해외) 외국의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빅데이터 목적으로 활용가능
- ③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 * 신용정보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2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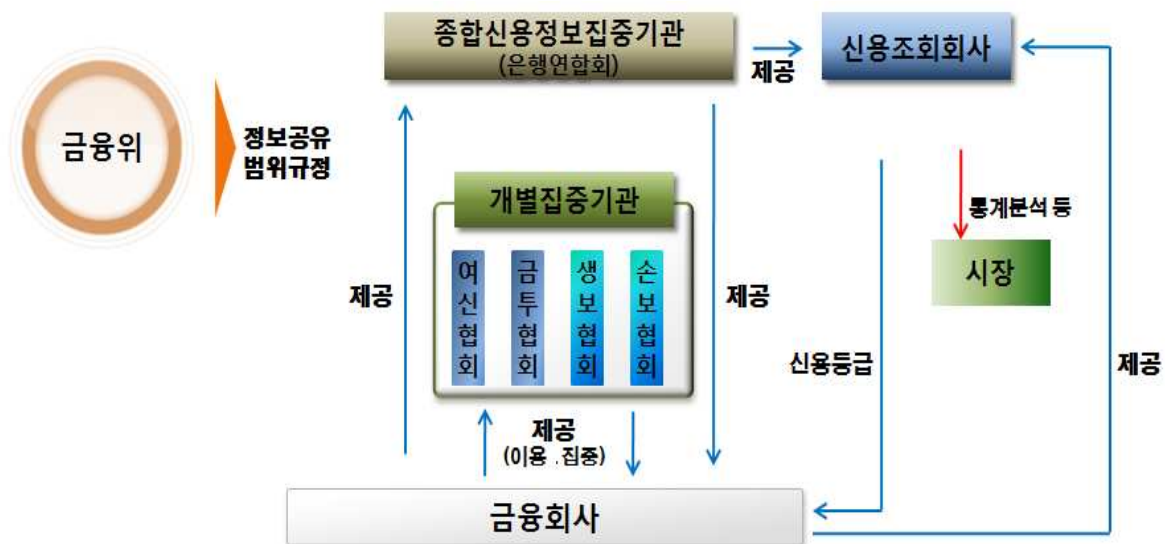
- 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16.3월까지 통합 완료)될 예정
 - * (종합)은행연합회, (개별)생명·손해보험협회, 금투협회, 여신협회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되면, 전세계적으로 보험업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정보가 통합되는 최초의 사례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
 - 금융 관련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참고

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 및 해외사례

① (현황) 신용정보법상 금융협회가 금융회사 신용정보 집중·관리

- * (종합)은행연합회, (개별)생명·손해보험협회, 금투협회, 여신협회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여신 심사, 보험계약 인수 등에 활용
-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금융회사 등에 판매



② (해외사례) 집중기관(PCR : Public Credit Registry)과 신용정보사 (CB : Credit Bureau)가 공존하는 국가는 30개국*

- * 유럽(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아시아(한국, 말레이시아)
- 외국의 PCR은 금융시스템 안정 등 정책·감독 목적상 일정 기준 이상*의 연체정보 등을 수집하여 금융회사와 공유
- * 독일 1.5백만유로 이상 대출, 이탈리아 7.5만 유로 이상 대출 등
- 보험정보를 PCR로 집중하는 경우는 없으나, 보험사기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 조직을 두어 정보를 집중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더라도 특정 절차를 거치면 다시 식별화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비식별화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타업권* 처럼 비식별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안내서 발간('15.5, 금융, 통신 등 모든 업권에서 이용 가능)

나. 해외사례

□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율성이 강조되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지침 등을 마련한 경우는 없음

다. 개선방안

□ 협회 공동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권 비식별화 지침 마련 · 시행('15.9월)

Ⅲ. 기대효과

- ◇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권 빅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 마련
-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협력을 유도하여 금융산업과 핀테크가 상호 발전하는 창조경제 활성화

- ① (기반 마련)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② (인프라 구축)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정보 활용이 가능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활성화되어 금융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 핀테크 기업은 비식별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금융회사와 협력 및 경쟁이 가능
- ③ (창조경제)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

Ⅳ. 향후계획

- 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은 조속히 해소
 - 신용정보법위 명확화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12일까지 완료)
 -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 유권해석 답변
-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16.3월 이전에 조속히 설립
- ③ 비식별화 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15.9월까지 마련·시행